

# 필리핀 화인사회의 구조와 위상

박 사 명\*

## - 목 차 -

- I. 서론
- II. 귀화조치 이전 (1946-1975)
- III. 귀화조치 이후 (1975-현재)
- IV. 결론

## I. 서론

필리핀의 토착사회에 아직 완전하게 동화되지 않은 화인사회(華人社會)는 전체 인구의 1% 내지 2%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국민경제의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한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필리핀을 태국의 '융합사회'와 말레이시아의 '복합사회'의 중간유형으로서 전자처럼 완전히 융해되지도 않고 후자처럼 완전히 분해되지도 않는 '혼합사회'로 파악하는 시각은 필리핀 화인사회의 보편성과 가변성을 부각한다(郭梁 1990, 17; 李國卿 1984, 189-90, 214-220). 그러나 독립 이후의 필리핀을 식민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다중사회(多重社會 plural

---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society)'—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상호관계가 유기적 통합이 아니라 기계적 병존에 불과한 일종의 '복합사회'—로 인식하는 시각은 필리핀 화인사회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강조한다(Amyot 1973, 62-82; Steinberg 1982, 17-19, 20-22).

탈식민화 이후 국가형성과 국민통합의 방향과 속도가 다양한 동남아 각국의 현실에 비추어 화인사회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과대평가하고 보편성과 가변성을 과소평가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일면적이다. 화인사회에 대한 연구는 그 문화적 속성 및 경제적 위상의 특수성과 계속성만 부각하는 정태적 연구로부터 그 내부적 구조 및 대외적 관계의 보편성과 가변성에도 주목하는 동태적 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Heidhues 1990). 식민사회와 긴밀하게 연루된 '다중사회' 개념만으로는 탈식민화 이후 전개되는 급속한 사회변동의 역동적 현실을 온전히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다. 탈식민화 이후 동남아의 민족주의적 국가형성과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은 다양한 방향과 속도로 각국의 사회변동을 추동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의 화인사회는 그 내부구조와 대외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보편성과 가변성을 드러낸다. 필리핀의 화인사회도 그러한 역동성에서 예외일 수 없다.

화인문제에 대하여 동태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화인사회 중심적 시각에서 토착사회 중심적 시각까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 있는 동남아의 역사적 현실은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역동적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국민통합 지향적 시각을 요구한다. 그러한 시각에 있어서 필리핀의 경우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시대는 토착사회로부터의 소외가 지속되는 화인사회의 형성단계, 1946년 독립 이후의 시기는 토착사회에 대한 통합이 진전되는 화인사회의 변화단계로 파악될 수 있다. 사실 2차 대전 이후 동남아의 탈식민화와 중국의 공산혁명은 동남아의 화인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계기이다. 그것은 동남아와 중국에서 단일국적이 제도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각국 화인사회의 귀속의식이 종래의 중국 귀속적 '뿌리찾기(落葉歸根)'에서 현지 지향적 '뿌리뻗기(落地生根)'로 전환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식민시대의 '뿌리찾기'와 독립 이후의 '뿌리뻗기'에 있어서도 화인사회의 귀

속의식은 각각 두 단계의 중요한 변화를 거친다. 식민시대의 '뿌리찾기' 단계에서는 혈연, 지연, 방언 등 원초적 귀속의식에 따라 내부적 균열이 지속되는 '방파사회(幫派社會)'의 '역사적 정체성(historical identity)'이 중화적 민족의식의 확산에 따라 중국 귀속적 '화교사회(華僑社會)'의 '민족적 정체성(nationalist identity)'으로 발전한다. 그것이 독립 이후 '뿌리뽑기' 단계에서는 현지 지향적 '화인사회(華人社會)'의 '집단적 정체성(communal identity)'으로 전환되고, 국민국가의 형성이 진전됨에 따라 현지 귀속적 '국민사회(國民社會)'의 '국민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으로 통합되어 가는 것이다(Wang 1988, 1-21; 黃枝連 1992, 292).<sup>1)</sup> 물론 화인사회의 그와 같은 형성과 변화에 있어서 각 후속단계는 그 선행단계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단계에 일정하게 중첩하게 된다.

동남아 화인사회의 그와 같은 거시적 맥락을 통하여 필리핀 화인사회의 형성과 변화에 접근할 경우, 식민시대의 화인사회 형성과정은 스페인시대(1565-1898)의 '방파사회'와 미국시대(1898-1946)의 '화교사회'로 구분될 수 있으며, 1946년 독립 이후 화인사회의 변화과정은 1975년 귀화조치 이전의 '화인사회'와 귀화조치 이후의 '국민사회'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독립 이후 필리핀 화인사회의 대내적 구조와 대외적 위상을 그와 같은 두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따라 화인정책의 기본성격, 화인경제의 전개양태, 화인사회의 내부구조,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상호관계 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 II. 귀화조치 이전 (1946-1975)

1946년 독립 이후 새로운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필리핀정부는 화인사회에 대한 민족주의적 배제정책을 강화한다. 1949년 중국혁명을 계기로 대륙

1) 이 연구에서 그러한 특정의 의미가 강조될 경우에는 각각 '방파사회', '화교사회', '화인사회', '국민사회' 등으로 표기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인용 부호가 첨가되지 않은 화인사회로 표기된다.

의 공산정부에 대한 연계가 차단되고 대만의 국민정부에 대한 연계만 유지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뿌리찾기(落葉歸根)'를 추구하는 중국 귀속적 '화교사회'는 '뿌리뿌기(落地生根)'를 모색하는 현지 지향적 '화인사회'로 전환된다. 그러나 토착사회에 대한 '화인사회'의 관계는 갈등과 조화의 양면 가운데 여전히 갈등의 측면이 압도적이었다. 따라서 1975년 전면적 귀화조치 이전의 시기는 중국 귀속적 '화교사회'의 '민족적 정체성'이 현지 지향적 '화인사회'의 '집단적 정체성'으로 전화하는 단계인 것이다.

### 1. 배제주의적 화인정책

1946년에서 1975년까지 탈식민화 이후 30년 동안의 화인정책은 그 이중적이며 잠정적인 성격에 있어서 식민시대의 화인정책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2차대전의 긴박한 상황 때문에 유보되었던 화인사회에 대한 억압적 배제정책이 탈식민화에 따라 확산되는 민족주의에 편승하여 다시 전면적으로 부상한다. 미국시대에 고조되었던 일련의 '필리핀화' 요구를 승계하여 '국유화(nationalization)'를 표방하는 각종 민족주의적 입법조치가 탈식민화의 새로운 역사적 맥락에서 식민경제를 국민경제로 재편한다는 새로운 정치적 명분을 통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다(Agpalo 1962; Golay et al. 1969, 102; 黃滋生 1990, 103).

이미 1945년 마닐라의 수복 직후 시도되는 시장국유화법은 화인사회에 대한 각종 배제정책의 효시이다. 화인사회에 대한 배제정책의 일환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법안의 빈도는 1대 국회(1946년-1949년) 약 10건, 2대 국회(1950년-1953년) 약 30건, 3대 국회 1차 회기(1954년) 약 70건, 5대 국회 1차 회기(1962년) 약 100건 등 매년 최소 30여건에서 최대 100건 이상에 이른다. 그러한 배제정책의 대상은 공공시장, 소매, 식량, 약품, 목재, 교육, 자유직업, 가축사료, 제분, 양계, 은행예금, 상표상호, 신문문자, 공용문서, 보험, 도매, 무역, 공업, 기계, 어업, 마직, 제화, 음료, 철제용기, 포목, 건축자재, 전당, 제지, 담배 등 화인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게 된다(劉芝田 1967, 678-679).

물론 그와 같은 법안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유보되거나 대통령이 거부함으로써 입법에 실패하지만, 통과된 법률만으로도 화인경제의 중추신경이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예컨대 2차대전 직전의 자유업필리핀화법은 화인사회의 전문직종 진출기회를 봉쇄하고, 시장국유화법(1947)에 따라 화인경제의 상업기반이 와해되며, 은행국유화법(1948)으로 화인사회의 금융기능이 마비되고, 수입국유화법(1953)은 화인기업의 외화조달을 차단하며, 소매국유화법(1954)에 따라 화인경제의 기간부문이 파괴되며, 식량국유화법(1960)은 화인사회의 곡물 가공·판매를 금지한다(黃滋生 1990, 104; Golay et al., 1969, 64-97).

그러한 민족주의적 경제정책은 화인사회에 대한 폐쇄주의적 귀화정책을 통하여 보장된다. 1949년 중국혁명을 전후하여 중국이민이 90% 이상 감소되고, 국적요건으로서 혈통주의(*jus sanguinis*)가 강화됨에 따라 화인의 귀화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된다. 그와 같은 배제적 화인정책은 화인사회의 폐쇄적 정체의식을 심화함으로써 독립 이후 15년 동안 필리핀국적을 취득하는 화인은 현실적으로 귀화조건을 충족능력을 보유한 화인사회의 최상계층에 국한되며, 화인사회 전체인구의 2% 미만으로 추산된다(Golay et al., 1969, 46-51). 화인사회에 대한 그와 같은 배제정책은 '계획적, 조직적, 전면적'이 있는바, 민족주의를 표방한 입법조치와 사회세력의 동원으로 인하여 토착사회에 대한 화인사회의 소외의식이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것이다(劉芝田 1967, 676-677).

## 2. 국민경제의 통합구조

1946년 필리핀의 탈식민화는 식민경제의 다중구조를 국민경제의 통합구조로 재편하는 역사적 계기를 제공한다. 1950년대를 통하여 보호주의적 수입대체 공업화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1차산품의 수출과 공업제품의 수입으로 분업화된 식민지적 종속구조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상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던 화인자본은 각종 배제정책의 제약을 우회하여 공업부문 등 새로운 경제영역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서양경제', '화인경제', '토착경제' 등 상호 유기적 통합이 결여된 식민경제의 다

중구조가 점차 국민경제의 통합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독립 이후 소매부문의 경우 1948년 현재 점포수는 토착자본 90%, 화인자본 10%, 총자산은 토착자본 67%, 화인자본 29%, 총매출은 토착자본 61%, 화인자본 38%로서 일본점령의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시대의 종반인 2차대전 직전의 수준이 회복된다(Golay et al. 1969, 64). 상업부문 전체적으로도 화인자본은 1948년 현재 기업자산에 있어서 토착자본 46.2%에 뒤이어 23.3%를 점유한다. 따라서 화인자본이 집중되어 있었던 상업부문에 1939년에 비하여 1948년 현재 미국자본은 20.6%에서 12.9%로 크게 약화되고 토착자본은 34.7%에서 46.2%로 증가하는 반면, 화인자본은 25.4%와 23.3%로서 전반적으로 현상유지 수준에 머문다(Purcell 1965, 563).

상업부문에서 화인경제의 위상이 일반적 인식처럼 압도적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54년의 소매국유화법은 소매부문에서 화인경제를 급속하게 구축한다. 1954년에서 1971년까지 대부분 화인인 외국인 소매상점이 20,268개에서 8,033개로 60% 이상 감소하는 것이다. 대외무역의 경우에도 1948년에서 1965년까지 미국자본은 대체로 종전의 위상을 유지하는 한편, 토착자본의 급속한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화인자본은 지속적으로 약화된다. 신규투자에 있어서도 화인자본은 1945-56년의 평균 26.5%로부터 1957-62년의 평균 14.0%, 1965-71년의 평균 5.5%로 감소되는 반면, 토착자본은 각각 68.9%, 84.0%, 92.5%로 급증한다(Angliongto 1975, 67-68; Golay et al. 1969, 62).

그러나 전통적 상업부문에서의 급속한 약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한 구조적 전환에 따라 화인경제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성장이 지속된다(Rivera 1994, 62-72; Yoshihara 1988, 50). 1950년 이후 보호관세, 수입통제, 외환통제 등을 통한 수입대체 공업화과정에서 화인자본은 새로운 투자유인을 좇아 공업부문과 그 유관부문으로 이동한다. 공업제품의 수입과 판매에 투자되던 화인자본이 이제는 공업제품의 생산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부문에 투자됨으로써 이미 1961년 현재 제조업의 경우 대형기업의 26% 및 소형기업의 8%, 도매업의 경우 대형기업의 28% 및 소형기업의 29%, 기타 서비스부문

의 경우 대형기업의 18% 및 소형기업의 8% 등을 확보하는 것이다(Golay et al. 1969, 106-107).

그 결과 1968년에 이르면 화인자본의 투자가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부문으로 확산된다(Yoshihara 1985, 38-39).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전력, 소매, 건설, 수송, 통신 등 기타 부문은 각종 '국유화' 법령을 통하여 미국자본을 제외한 모든 외국자본의 투자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물론 현지에 귀화한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화인자본도 일반 외국자본과 동일한 투자규제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화인자본은 외국투자 통제부문과 전통적 소매부문을 기피하여 공업부문과 도매·무역 등 다른 상업부문으로 급속하게 이동한다. 1966년 현재 총 876개 화인기업의 자본금총액 가운데 공업부문 411개 기업이 약 40%, 상업부문 361개 기업이 약 52%를 점유하게 되는 것이다(Palanca 1977, 215).

요컨대 수입대체 공업화와 경제구조 다원화에 따라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토착자본의 위상이 강화되고, 화인자본은 전통적 소매부문에서 도매·무역부문과 공업부문으로 이동한다. 화인경제의 구조가 분화되고 토착경제에 대한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경제의 유기적 통합이 심화된다. 종래 유통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던 화인자본의 소규모 독립자영 생산방식이 수입대체 공업화와 더불어 생산부문으로 이동하여 대규모 자본주의 생산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토착자본과의 구조적 연계가 강화되고 토착노동의 고용이 증대함에 따라 종전 식민지적 다중경제의 기계적 분업구조가 약화되는 한편 국민경제의 유기적 상호의존이 강화되는 것이다(吳文煥 1990, 99-100).

### 3. 화인사회의 내부구조

상업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화인사회의 계급구조는 토착사회의 계급구조와는 대조적으로 농민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소수인 반면 중간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60년 화인사회의 고용구조에 대한 한 추산에 의하면 경영관리자 4.7%, 소장인 및 판매원 16.1%, 의사, 교사, 기술자 등 각종 전문직 종사자 4.5%, 노동자 3.3%, 기타 5.2%, 실업자 3.2% 등 모두 37%

의 노동인구가 나머지 63%의 가족을 부양하며, 노동인구만을 중심으로 환산할 경우 자본가 12.7%, 중간계층 55.7%, 노동자 8.9%, 기타 14.1%, 실업자 8.6% 등으로 나타난다(Liao 1964, 441; 楊力·葉小敦 1993, 352).

그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필리핀의 화인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다양한 성격과 규모의 조직이 분출한다. 특히 탈식민화 이후 화인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위기라는 일견 상반되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각종 사회조직이 중화적 민족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던 2차대전 직전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1976년 현재 172개의 지연조직 가운데 138개와 1981년 현재 116개의 혈연조직 가운데 72개가 1945년 이후에 등장하는 화인조직이다(Carino 1990, 369).

2차대전 때문에 잠복하는 화인사회의 내부적 갈등이 종전 이후 다시 표출되고, 화교협회에 연루된 친일분자에 대한 숙청선봉에 따라 화인사회의 내부적 분열이 악화된다. '전통파'와 '국민파'가 대립하는 화인사회 권력투쟁의 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미국시대의 마닐라중화상회가 종전 직후에 다시 복원된 중화총상회(中華總商會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총상회')이다. 미국시대에 마닐라중화상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전통파'는 화인사회의 권익보호라는 비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국민파'는 대만의 국민정부를 위한 자원동원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한다(Carino 1990, 372).

화인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국민파'의 도전은 1954년 필리핀화상연합총회(菲律賓華商聯合總會 Federation of Filipino-Chin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이하 '상련총회')의 창설로 귀결된다. '상련총회'가 곧 '총상회'를 압도하게 되는 화인사회의 권력이동을 촉진하는 것은 필리핀 정부의 국유화정책 및 반공운동과 대만정부의 막후공작이었다(Agpalo 1962, 131-132, 185-194). 그 결과 각종 경제단체를 포괄하는 '상련총회'와 화교종친회연합회, 화교학교연합회, 국민당총지부, 화교반공연맹 등 이른바 '5대 조직의 피라밋'이 화인사회를 석권하게 된다(See, C. 1988, 320-321; Wickberg 1992, 46).

2차대전을 계기로 잠적한 동향회 등 각종 '전통적' 조직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1950년대 후반이다. 상류층의 상회조직에서 소외된 소상공인, 점원, 고용인 등 하류층과 새로운 신분상승의 기회를 포착한 중간층의 경제적·심리적 욕구가 더욱 근접적이고 인격적인 지연조직을 통하여 표출되는 것이다. 동향회는 1956년 현재 57개를 상회하며, 종친회는 1958년 현재 47개에 이르게 된다(Amyot 1973, 83-106). 2차대전 이전 동향회의 일차적 목표가 본국에 대한 재정지원이었던 반면, 본국과의 연계가 차단된 1950년대 후반 동향회의 중심적 목적은 상호부조였기 때문에 그와 목적이 유사한 종친회에 대한 조직적 유대가 강화된다(See, C. 1981, 230-231; See, C. 1988, 320-324).

2차대전 직전 70개 정도이던 화교학교가 독립 이후 다시 급증하여 1963년 현재 전국적으로 161개의 학교, 67,800명의 학생에 이르게 된다. 그들은 대만정부의 지원으로 중화문화의 전수와 정체의식의 보존에 기여한다(See, C. 1985, 37; Tan 1988, 189-190; 楊力·葉小敦 1993, 333-337). 일본군정이 정간시킨 『공리보(公利報)』, 『화교상보(華僑商報)』, 『신민일보(新聞日報)』가 복간되고, 『대화일보(大華日報)』와 『중정일보(中正日報)』가 창간된다. 『화교상보』는 화인사회의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최대 일간지로서 발행부수가 1만부를 상회하고, 그와 경쟁하는 『신민일보』도 발행부수가 1만부에 근접하며, 『공리보』는 2천여부, 『대화일보』와 『중정일보』가 합병된 『대중화일보(大中華日報)』는 3천여부의 발행부수에 이르게 된다(楊力·葉小敦 1993, 337-339).

#### 4. 화인사회의 통합과정

독립 이후 종래의 중국 귀속적 '뿌리찾기'는 약화되고 현지 지향적 '뿌리 뺏기'가 강화됨에 따라 '화교사회'가 점차 '화인사회'로 전환된다. 필리핀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한 소수민족으로서 '화인사회'가 토착사회의 다수민족에 대한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과정에서 중화적 민족의식에 입각한 '민족적 정체성'의 객관적 입지가 함몰되어 간다. 그러나 화인사회에 대하여 여전히 배제적인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화인사회의 민족의식과 토착사회의 반화(反華)의식이 상승작용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기회가 지연된다. 따라서 토착

사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조화보다는 갈등의 측면이 지배적인 '화인 사회'의 '집단적 정체성'이 적어도 1975년까지는 비교적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민족적 정체성'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정체성'의 수용에는 소극적인 '화인사회'의 '집단적 정체성'은 언어, 결혼, 종교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969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언어의 경우 부모세대에 비하여 학생세대의 필리핀어 및 영어 구사능력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결혼의 경우 종족간 통혼에 대한 부모의 예상되는 반응에 관하여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본인의 경우 남학생은 긍정적 태도가 다소 높은 반면 여학생은 부정적 태도가 다소 높다. 종교의 경우 화인사회의 전통적 불교에서 이탈하여 토착사회의 지배적 종교인 기독교에 동화되는 수준에 있어서 청년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하여 훨씬 높다(McBeath 1970, 76-77). 세대의 변화에 따른 의식의 변화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심리적 거리가 여전히 심각하다.

청년세대의 귀속의식의 변화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화인 대학생에 대한 다른 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78.7%가 문화적 동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4.3%는 어느 것도 무관하다는 소극적 입장, 17%만이 문화적 동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 소수의 반대 가운데 75%는 현실적으로 두 문화의 융합이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25%는 원칙적으로 현지문화에 반드시 동화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지적한다. 현지출생 화인의 국적 요건에 대해서는 91.4%가 단순한 속지주의(*jus soli*)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화인사회의 문화적 정체 의식과는 무관하게 그 정치적 귀속의식이 광범하게 현지 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드러난다(Angliongto 1975, 58).

요컨대 독립 이후 객관적 및 주체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화인사회는 그 지도세력의 의도와 무관하게 토착사회에 대한 통합과정에 진입한다. '화교사회'를 풍미하던 '민족주의의 전성시대'가 사라져 가면서 '화인사회'의 중국(대만)귀속적, 화인사회중심적, 필리핀지향적 집단 가운데 첫째와 둘째의 이른바 '차이나타운 차이나스(Chinatown Chinese 中國城 中國人)'는 감소되고, 셋째 집단이 다수로 부상하는 것이다(Angliongto 1975, 58-59). 현지국적의

취득기회가 철저히 통제되는 상황에서 화인사회의 정치참여는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직접참여가 배제된 채 '상련총회'를 통한 간접참여에 국한된다. '상련총회'가 선거기간에 특정 입후보자에 대한 막후지원을 통하여 화인사회의 이익표출을 위한 비공식적 경로를 확보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었다(Suryadinata 1993, 298-299).

### Ⅲ. 귀화조치 이후 (1975-현재)

1975년의 전면적 귀화조치 이후 '화인사회'의 '집단적 정체성'은 '국민사회'의 '국민적 정체성'으로 포섭되어 간다. 토착사회에 대한 화인사회의 장기적 소외(alienation)--화인사회의 대내적 정체성과 대외적 자율성이 최대화되면서 토착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상태--가 잠정적 통합(integration)--화인사회의 대내적 정체성과 대외적 자율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토착사회와 조화롭게 융화되는 상태--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사실 식민시대와 독립 이후의 이중적 화인정책으로 인하여 궁극적 동화(assimilation)--화인사회의 대내적 정체성과 대외적 자율성이 최소화되면서 토착사회에 전면적으로 포섭되는 상태--는 필리핀 화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차적 대안으로서 고려되기 어려운 것이었다(McBeath 1973, 17-27).

#### 1. 포섭주의적 화인정책

1966년 마르코스(Fredinand Marcos)의 집권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정책에 따라 화인사회에 대한 종래의 폐쇄적 배제정책이 점차 '경제적 이용, 국적의 개방, 문화적 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개방적 포섭정책으로 전환된다(楊力·葉小敦 1993, 353). 1950년대의 수입대체 공업화정책이 1960년대에 이르면서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미 마카빠갈(Diosdado Macapagal) 정권에서부터 약화되기 시작하는 배제적 화인정책은 마르코스의 집권 이후 1973년의 화교학교에 대한 '필리핀화' 조치 이외에는 더 이상 시도되지 않는

다. 더욱이 화교학교의 '필리핀화'도 사실 소극적 배제정책이 아니라 적극적 포섭정책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Angliongto 1975, 54-56; Carino 1990, 378-379).

그와 같은 화인정책의 변화는 독립 직후의 민족주의적 경제정책의 이중성에 기인한다. 한편으로는 식민경제를 국민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국유화' 정책의 성과로 인하여 더 이상 특단의 '국유화' 조치가 필요없게 된다(Golay et al., 1969, 105).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간 추진된 '국유화' 정책이 화인경제를 토착경제로 재편하려는 궁극적 목표에 실패하고, 오히려 경제질서를 교란함으로써 물가상승, 실업증가, 경제정체, 부정부패 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미 1960년대 초반 마카빠같은 필리핀의 일차적 과제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경제발전임을 선언하면서 외환통제와 수입통제를 해제하고 페소(peso)의 평가절하를 단행함으로써 민족주의적 경제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Golay et al. 1969, 103-104).

마르코스의 포섭주의적 화인정책은 1970년대에 계엄선포, 미중(美中)화해, 월남종전 등을 계기로 절정에 이른다.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중국과의 수교는 '화인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했던 것이다(Angliongto 1975, 139-142; 黃滋生 1990, 108-109). 마르코스는 1975년 대중수교 전야에 귀화자격과 귀화절차를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화인의 국적취득이 자유화된다. 따라서 1975년의 귀화조치는 '마르코스의 보기드문 긍정적 유산'으로 평가되는 것이다(Yoshihara 1988, 128). 1988년 아끼노(Corazon Aquino) 정권에서도 불법거주 화인에 대한 영주권이 광범하게 허용된다.

그에 따라 귀화를 거부하고 계속 '화교'의 신분을 유지하는 화인은 화인사회 전체의 5-10 % 정도에 불과한 노년세대에 국한되고, 2차대전 이후 필리핀에서 출생한 나머지 90% 이상의 청년·장년세대는 대부분 필리핀에 귀화한다. 일단 국적을 취득한 화인은 완전한 필리핀 국민으로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그에 따라 식민시대는 물론 독립 이후에도 화인사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다양한 국가적 제약과 사회적 압력은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 관한 한 전면적으로 해소된다.

'화인사회'의 '집단적 정체성'이 필리핀 '국민사회'의 '국민적 정체성'에 포섭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 2. 국민경제의 통합구조

이미 1966년 마르코스의 집권 이후 화인경제의 이해는 전체 국민경제의 이해로부터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그 구조적 통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심화된다. 화인자본은 전통적 상업부문 이외에도 공업부문은 물론, 금융, 보험, 부동산 등 각종 서비스부문으로까지 확장되며, 고등교육을 거친 청년세대는 종래의 폐쇄적 화인사회를 이탈하여 법률, 언론, 방송, 예술, 학문, 사회사업 등 '국민사회'의 다양한 전문영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See, T. 1990, 367). 그러나 공업부문의 경우 화인자본은 마르코스 이전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국내시장을 겨냥하는 수입대체부문에 집중되고 있었다(Palanca 1995, 19).

화인자본의 그러한 한계는 토착자본이나 외국자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1970년 수출진흥법을 통한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수입대체부문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수입대체부문의 비교우위가 유지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 이후 대부분의 화인자본이 법률상 토착자본으로 전환됨으로써 농업, 광업, 전력, 수송, 통신 등에 대한 화인자본의 투자금지가 해제되며, 그에 따라 화인자본은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으로 침투하게 된다(Rivera 1994, 103; 吳文煥 1990, 100). 1990년 현재 화인자본은 필리핀 100대 기업의 25.0%, 200대 기업의 26.0%, 500대 기업의 31.0%, 1,000대 기업의 35.4%를 점유하는 등 내국자본 가운데 국가자본을 제외한 토착자본과 거의 대등한 위상을 차지한다(Palanca 1995, Table 1).

그러나 화인기업은 토착기업과 외국기업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바, 1990년 현재 1,000대 기업의 35.4%로서 기업수는 토착자본과 거의 대등함에도 불구하고 총매출의 15.2%, 총순익의 14.4%, 총자산의 15.2%에 그침으로써 매출, 순익, 자산 등에 있어서는 모두 토착자본의 50%에도 크게 미치지 못

한다(Rivera 1995, 9). 그 점에 있어서 필리핀은 토착자본이 화인자본에 대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동남아의 거의 유일한 경우로 평가되기도 한다(Yoshihara 1988, 51). 화인자본의 그러한 실상은 한편으로는 가족기업으로서의 상대적 영세성과 후진성을 드러내며, 한편으로는 '박리다매(薄利多賣)'라는 전통적 경영전략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다(Palanca 1995, 18,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인기업이 상업부문의 중소기업에서 제조업, 무역,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새로운 부문의 대형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1990년 현재 1,000대 기업에 속하는 354개 화인기업이 그 수와 매출에 있어서 모두 거의 95%가 제조업, 상업, 기타 서비스—금융, 보험, 부동산—부문 등 3개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Palanca 1995, Table 14). 특히 354대 화인기업의 거의 50%가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화인기업이 1968년 250대 기업의 32.0%, 1980년 140대 기업의 47.9%, 1990년 250대 기업의 36.7% 등을 차지함으로써 필리핀 공업자본의 '가장 역동적 분과'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된다(Palanca 1995, 13-14; Rivera 1994, 126).

화인자본의 구조적 분화와 성장은 기본적으로 필리핀 국민경제의 구조적 분화와 성장의 소산이다. 화인자본은 식민시대에는 서양경제와 토착경제를 중개하는 상업부문에 집중되고, 1950년대 및 1960년대에는 민족주의적 경제정책에 대응하여 공업부문으로 이동하며, 1970년대에는 전면적 귀화조치에 따라 투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1980년대에 이르면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서비스부문으로 침투하는 것이다. 공업부문의 경우에도 화인자본은 초기의 농산물 및 임산물 가공 위주의 경공업부문에서 후기에는 점차 철강 및 금속 등 중공업부문으로 확장된다(Palanca 1995, 15-16, 23-24; Yoshihara 1985, 82-106). 그러나 화인자본은 역사적 및 구조적 제약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현재 1,000대 기업의 업종분포에 있어서 상업부문의 51.2%에 이르는 압도적 위상과 제조업부문의 36.7% 및 농림수산부문의 36.7% 등 상당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광업, 전력, 건설, 수송 등 다른 부문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지극히 미약하다(Palanca 1995, Table 11).

1992년 라모스(Fidel Ramos)의 집권 이후 이른바 '성장연합(growth coalition)'에 대한 화인자본의 적극적 참여에 따라 화인경제의 국민경제에 대한 통합이 더욱 가속화된다. 1993년 라모스의 중국방문에 수행하여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화인사회 6대 거부 가운데 5인은 이미 '상련총회' 중심적 화인사회의 전통적 경계를 완전히 이탈하고 있었다(張素玉 1995). 토착자본과 외국자본에 대한 화인자본의 합작경험이 축적되고 세대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종래의 폐쇄적 가족주의와 중화의식이 개방적 국민의식과 국제감각으로 대체된 새로운 화인기업이 증가한다. 따라서 화인자본은 국민경제의 구조적 통합은 물론, 필리핀경제의 대외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개고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Palanca 1995, 28; Rivera 1994, 99-106; Yoshihara 1988, 128; 董孟雄·陳慶德 1990; 吳文煥 1990, 101-102).

### 3. 화인사회의 내부구조

현재 필리핀 화인사회의 90% 이상은 이미 필리핀에 귀화한 필리핀 국민이다. 2차대전 이전에 이주한 1세대 화인의 80%-85%는 복건인, 15%-20%는 광둥인이며, 2차대전 이후 필리핀에서 출생, 성장, 교육을 거친 2, 3, 4세대가 현재 화인사회 인구의 85% 이상에 이른다. 필리핀 화인사회의 경우 그 계급구조는 필리핀 토착사회는 물론 동남아 화인사회와도 현저하게 대조적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농민과 노동자의 비중이 최소화되는 반면 중간계층이 최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후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비중이 최소화되는 반면 중간계층이 최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한 대조적 현상의 요인으로서 미국시대의 이민금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McBeath 1973, 223).

그러나 필리핀 화인사회의 계급구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한 시도에 의하면 개인의 재부, 직업, 교육, 지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1% 미만의 거부를 포함한 5% 이내의 최상층 지도집단, 45% 정도의 상류층 상승집단, 30% 내외의 중간층 기간집단,

20% 이하의 최하층 한계집단 등으로 추산된다(Wickberg 1992, 59-64). 그러한 상황에서 1950년대에 구축된 이른바 '5대조직의 피라밋' 가운데 화교 반공연맹의 퇴장과 1975년 이후 각종 친중국제 조직의 등장을 제외하면, '상련총회'를 정점으로 하는 화인사회의 위계적 조직구조가 온존되고 있다(See, C. 1988, 321; Wickberg 1992, 46).

필리핀 화인사회는 현재 1,000 개를 상회하는 각종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화인사회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Wickberg 1992, 45; 菲律賓 1990, 4). 그러나 1950년대 화인사회의 조직화가 주로 필리핀정부의 민족주의적 배제정책에 대응하여 기존의 다양한 분권적 기층조직을 부문에 따라 전국적 위계구조로 재편하는 최상층 지도집단의 운동이었다면, 마르코스 집권 이후 화인사회의 조직화는 주로 상류층 상승집단과 중간층 기간집단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Wickberg 1992, 47).

그것은 바로 화인사회의 구조적 분화에 따라 기존의 위계적 조직구조가 더 이상 충족하기 어려운 화인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된 것으로서 대체로 두 종류의 조직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대내적으로 화인경제의 다원화에 따라 기존의 대규모 위계적 조직이 화인사회 지도집단의 심리적·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데 효과적인 데 반하여, 상승집단과 기간집단의 심리적 및 경제적 요구는 소규모의 분권적 조직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내향적 조직이다. 다른 하나는 화인세대의 변화와 현지동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화인사회' 중심적인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구조는 대외적으로 개방적 '국민사회'로의 이행과 관련된 화인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등장하는 외향적 조직이다.

첫째 범주의 요구는 지속적 불법이민과 1975년 대중수교를 계기로 더욱 자극되는 측면이 있는 혈연, 지연, 방언, 학연, 업종 등에 기반한 소규모 '전통적' 조직의 확산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둘째 범주의 요구는 화인사회의 '국민사회'에 대한 적극적 통합을 추구하는 1970년대 전반의 합일협진회(合一協進會 Pagkakaisa Sa Pag-unlad, 이하 '협진회')나 1980년대 후반의 필리핀화에청년연합회(華裔青年聯合會 Kaisa Para Sa Kaunlaran, 이하 '청년연합회')와 같은 청년세대의 정치적 조직, 라이온스클럽(Lions Club), 로타



리클럽(Rotary Club), 청년상공회의소(JC), 의용소방대(防火會), 기타 사회봉사단체 등 토착사회와의 교류가 일상화된 중년세대의 사회적 조직, 중국, 대만, 동남아 등지와 연계된 국제적 조직 등과 같은 '근대적' 조직의 등장으로 표현된다.

물론 '전통적' 조직과 '근대적' 조직은 설립목적과 조직기반에서의 근본적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준의 현지동화 경향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통성을 지닌다(Angliongto 1975, 57; See, C. 1988, 321-331; See, T. 1992, 113; Wickberg 1992, 47-59; 戴一峰 1991; 宋平 1995a; 宋平 1995b; 菲律賓 1990, 32-37). 예컨대 화인사회의 '전통적' 조직을 대표하는 '상련총회'조차도 화인사회의 일치단결 및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본래의 목적에 국가정책의 협조와 국민통합의 촉진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첨가한다(菲華商聯, 1994, 4). 그러나 화인사회의 지도적 지위는 여전히 '뿌리찾기'를 지향하는 소수의 보수적 노년세대가 석권하고 있으며, 그들은 대체로 중국지향적, 대만 지향적, 화인중심적 집단 등으로 3분된 채 '국민사회'로의 진정한 통합에 대하여 여전히 소극적이다(Angliongto 1975, 59; See, C. 1988, 321; See, T. 1990, 367).

1975년 필리핀의 대중수교는 대만정부의 '상련총회'와 화인사회에 대한 위상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 대만대사관이 태평양경제문화중심(太平洋經濟文化中心)으로 개편되고, 대만정부의 화인사회에 대한 공개적 접근기회가 차단된다. 그에 따라 화인사회에 대한 중심적 접근통로인 '상련총회'를 장악하기 위한 대만정부의 시도가 더욱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1975년 이전부터 개시된 대만정부의 화인사회에 대한 위상의 약화는 반전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1970년 일단의 대졸 지식청년이 조직한 '협진회'의 출현이었다. 그 조직의 목적은 소극적 자폐의식 대신 적극적 참여의식을 통하여 화인사회의 합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토착사회와의 융합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신념을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에 확산하는 것이었다. 당시 개최중이던 개헌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에 숙주주의적 국적원칙을 요구하고 4개의 지부까지 설치하는

등 그들의 새로운 시도는 화인사회의 지도부 특히 '상련총회'의 부정적 반응에 직면하고, 1972년 계엄선포에 따른 조직활동의 제약과 1975년 귀화조치로 인한 당면과제의 실종에 따라 1976년에 해체된다(Carino 1990, 377-378; 戴一峰 1991, 35).

보수적 '상련총회'에 대한 더욱 직접적인 도전은 1974년 설립된 이후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34개 지부를 설치하는 친중국계 비중우의구락부(菲中友誼俱樂部 Filipino-Chinese Amity Club 이하 '구락부')이다. 그러나 '구락부'의 좌경적 성향으로 인한 화인사회 기업계의 부정적 반응, 화인사회의 내부갈등에 대한 개입에 극도로 신중한 중국대사관의 소극적 태도(Tan 1988, 197-99), '상련총회'와 대만정부의 연계에 부정적인 다양한 세력의 규합에 무능한 주체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구락부'는 '상련총회'에 대한 경쟁의 상대로 부상하는 데 실패한다. '구락부'의 그러한 한계는 '상련총회'에 대한 더욱 강력한 도전을 위하여 1980년대에 시도된 바 있는 화교연합총회(華僑聯合總會 Federation of Chinese Associations)에 대한 양보의 거절에서도 노정된다(See, C. 1988, 330-331).

1970년대 전반 '협진회'의 노선을 계승하여 1980년대 후반에 다시 등장하는 '청년연합회'는 새로운 청년운동의 더욱 강력한 구심을 형성하고, '화인의 이중성'과 '화인사회의 복합성'에 주목함으로써 중국문화의 선양과 토착사회에 대한 '통합'을 표방한다(菲律賓 1990, 7-9, 35-37). 그들의 시각에 의하면 상존하는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간격 때문에 전면적 '동화'라는 궁극적 대안보다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유기적 '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See, T. 1994, 145-146). 따라서 '청년연합회'의 노선을 일종의 '재중국화(resinification, recinicization)' 현상으로 파악하는 회의적 시각(Wickberg 1992, 55)은 화인사회의 중국문화는 필리핀 국민문화의 하위문화로서 필리핀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화인사회의 문화적 정체의를 견지하고자 하는 '통합' 지향적 관점에 대한 과장된 우려에 불과한 것이다.<sup>2)</sup>

2) 1996년 7월 22일 마닐라 '청년연합회' 본부에서 이루어진 필자의 Teresita Ang See (洪玉華) 회장과의 면담.

결국 화인사회에 대한 '상련총회'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상련총회'에 대한 각종의 직접적 도전보다는 세대의 변화, 경제적 분화, 정치적 균열 등 화인사회의 객관적 변화 때문이다. 1975년 이전까지는 화인사회의 이해를 표출하고 대표하기 위한 포괄적 조직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지대한 바 있었다. 그러나 1975년 이후에는 화인사회의 대다수가 귀화하여 필리핀 '국민사회'에 통합되어 가고, 내부적으로 세대교체, 경제분화, 정치 균열 등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화인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통일적으로 대변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모두 약화되고 있으므로 '상련총회'의 위상 또한 계속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Carino 1990, 380-381).

언론기관의 경우에도 마르코스의 집권 이후 다양한 변화가 모색된다. 1972년 마르코스의 계엄선포에 따라 화인사회의 모든 신문이 폐간되는 한편, 1973년에는 『연합일보(聯合日報)』와 『동방일보(東方日報)』가 창간되고 1970년대 후반에는 『비화시보(菲華時報)』, 『환구일보(環球日報)』 등이 창간된다. 1981년 『동방일보』가 친중국계 『세계일보(世界日報)』로 재편되어 1만 여부를 발행하게 된다. 1986년 마르코스정권의 붕괴 이후 원래 마르코스일가가 화인사회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하여 창간한 『비화시보』가 화인자본에 매각되고, 폐간된 『화교상보』가 중국에 우호적인 『상보(商報)』로 복간되면서 폐쇄적 '화교신문'으로서의 역사를 마감하고 개방적 '화인신문'으로 변신한다. 그러나 친대만계가 창간한 『환구일보』는 여전히 대만중심적 입장을 고수한다(楊力·葉小敦 1993, 339-340).

1970년대 화교학교의 '필리핀화'는 화인사회의 '국민사회'에 대한 통합을 가속화하는 획기적 계기로 평가된다. 1973년 화교학교의 '필리핀화' 조치가 의도한 모든 화교학교의 소유, 경영, 교육에 대한 '필리핀화'가 1975년 전면적 귀화조치와 결합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중국어 교육시간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영어·필리핀어 교육이 광범하게 확대된다(Angliongto 1975, 54-56; See, C. 1985, 37-42; 楊力·葉小敦 1993, 333-337). 그러나 화인사회의 한자신문이나 학교교육은 전반적으로 청년세대 대부분의 개방적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화인사회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 노년세대와 독립 이후 불법이민한 일부 장년세대의 편협한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된다(See, T. 1995, 35-36; 菲律賓 1990, 7-9).

1950년대 이후 필리핀정부의 반공정책에 편승하여 번성하던 친대만계 정치적 조직들은 1970년대 미국과 필리핀의 대중수교를 계기로 대부분 활동방식을 변경하거나 공개활동을 중지한다(楊力·葉小敦 1993, 331-332). 그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화인사회에 잠재하던 중화적 민족의식이 다시 자극되어 일단의 친중국계 조직이 기존의 친대만계 조직에 도전함으로써 화인사회의 지도부가 다시 분열하게 된다(See, C. 1988, 319-320, 330-331). 각종 동향회와 종친회는 마르코스의 집권 이후 내부적 갈등과 분화로 인하여 다소 증가한다. 그러나 화인사회의 세대교체와 현지동화의 진전에 따라 그 조직기반이 계속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See, C. 1981, 237-247).

#### 4. 화인사회의 통합과정

필리핀 화인사회가 그 귀속의식의 변화에 따라 '국민사회'에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것은 화인사회 내부의 주체적 의지보다는 화인사회 외부의 객관적 조건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See, T. 1990, 357). 마르코스 이전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2차대전이라면, 마르코스 이후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75년의 귀화 조치이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와 의식의 전환에는 언제나 상당한 시차가 수반된다. 토착사회에 대한 화인사회의 귀속의식뿐만 아니라 화인사회에 대한 토착사회의 수용의식도 문제이다. 화인사회의 거의 전면적 귀화에도 불구하고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사회적·문화적 거리가 정치적·경제적 통합의 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Carino 1991; See, C. 1988, 327, 330; 吳文煥 1990, 97).

그러나 '집단적 정체성'으로부터 '국민적 정체성'으로 이행하는 필리핀 화인사회의 변화는 언어, 결혼, 종교,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측정된다. 언어능력의 경우 1989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1969년에 비하여 유창한 구사능력이 중국어는 32.9%에서 24.4%로 약화되는 한편, 필리핀어

는 59.6%에서 85.3%로 증가하고 영어는 37.7%에서 68.2%로 증가한다. 가정에서의 사용언어도 1969년에 비하여 중국어만 사용하는 경우는 44%에서 11%로 감소하고, 중국어와 필리핀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37%에서 78%로 급증하며, 중국어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영어와 필리핀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11%에 이른다. 신문구독의 경우에도 중국어만을 읽는 경우는 2% 미만, 영어와 필리핀어만을 읽는 경우는 67%, 중국어와 영어를 모두 읽는 경우는 32%이다(See, T. 1990, 364-366).

결혼의 경우에도 종족간 통혼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부정적 태도가 모두 일정하게 감소되는 반면, 어느 것도 무관하다는 경우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종족간 통혼의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미 1970년의 경우에도 화인사회의 전체 결혼건수 가운데 화인남성과 토착여성의 결혼은 47.8%, 화인여성과 토착남성의 결혼은 40.4%에 달하는 반면, 화인남성과 화인여성의 결혼은 11.8%에 불과한 것이다(周南京 1994, 214). 사회단체의 경우에도 노년세대가 지연조직, 혈연조직, 상회조직, 업종조직 등 화인사회의 '전통적' 조직에만 가담하는 반면, 청년세대는 '국민사회'의 다양한 '근대적' 조직에 광범하게 참여하고 있다(See, T. 1995, 31-32).

화인사회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적 노년세대가 없으면 각종 '전통적' 조직은 물론 교육기관과 언론기관도 존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다시 고조되는 중국어 학습열 등 이른바 화인사회의 '재중국화' 경향을 주도하는 것도 바로 그 세대이다. 그러나 화인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화현상은 화인사회의 광범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See, T. 1995, 30). 그와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의 대표적 사례가 1975년의 귀화조치와 1986년의 '민중혁명' 이후에 확대되는 화인사회의 공식적 정치참여이며, 폐쇄적인 '집단적 정체성'에 안주하던 화인사회가 개방적인 '국민적 정체성'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미 1975년의 귀화조치 이후 제도적으로 모든 유형의 공식적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식적 정치참여는 집단적 이익표출을 위한 조직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소극적 투표행위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1986년 이후 민주적 참여기회가 개방됨에 따라 일부 화인의 출

마 및 당선 사례가 점증하는 바와 같이 개인적 차원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더욱 적극화된다. 물론 그와 같은 특정 개인의 적극적 정치참여도 여전히 화인사회에 귀속하는 '화인'이 아니라 완전히 토착사회에 동화된 '국민'으로서 모두 토착사회의 정당조직을 통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인사회의 집단적 이해와는 거의 무관하다(See, T. 1994, 143-145; Suryadinata 1993, 299-300).

화인사회의 정치참여가 그와 같이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정치참여로의 전환과 적극적 정치참여의 증가는 '국민적 정체성'의 일정한 진전을 반영한다. 그 점에 있어서 1992년 5월의 선거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의 각종 선거는 물론 지방의 각종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유례없이 많은 화인이 출마하며, 수도권의 경우 각종 선거에 출마한 20인 가운데 마닐라시장을 포함하여 6인이 당선된다. 그동안 '국민사회'에서 소외된 국외자로서 필리핀정치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던 화인사회에서 보수적 '상련총회'까지도 전통적 관행을 파기하고 화인후보들을 초청하여 공식적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표출된다. 이는 '필리핀에 중국인이 이주하는 천년만에 최초의 현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黃棟星 1992, 32-37).

1970년대 초반까지도 화인사회의 '국민사회'에 대한 통합의 전망은 전반적으로 비판적이었다(McBeath 1973, 240). 그러나 1975년의 전면적 귀화조치 이후 화인사회의 내부상황은 예상을 초월하는 방향과 속도로 급변한다. 물론 국민통합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다음과 같은 신중론은 충분히 주목되어야 한다(See, C. 1988, 331): "현지출생 청년세대가 국민적 정체성을 지향한다는 지적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또는 계급적 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기대는 너무 조급하다. 문제는 필리핀인 자신조차도 토착적이든 외래적이든 다른 종족적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정체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나친 비판론은 현재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물론 미래의 변화를 위한 주체적 대응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 IV. 결론

식민시대의 종반 미국시대에 이르러 중화적 민족의식의 확산을 통하여 형성된 중국 귀속적 '화교사회'는 2차대전 이후 필리핀의 탈식민화와 중국의 공산혁명을 계기로 현지 지향적 '화인사회'로 전환되고, 1975년 마르코스의 귀화조치 이후 점차 현지 귀속적 '국민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화인사회'의 '국민사회'로의 이행은 필리핀 화인사회의 귀속의식이 토착사회에 대한 갈등과 조화의 양면적 관계 가운데 갈등의 측면이 두드러진 '집단적 정체성'으로부터 조화의 측면이 두드러진 '국민적 정체성'으로 변화되고, '소외'의 자폐의식이 점차 '통합'의 참여의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화인사회의 토착사회에 대한 관계가 '소외'에서 '통합'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조건의 변화와 아울러 주관적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귀화 등 객관적 조건의 성숙에 비하면 그 사회적 교류 및 문화적 접변 등 주관적 조건은 여전히 미숙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결속의 이완과 외부적 경계의 희석에 따라 이른바 '국가 속의 국가'로 비판되는 화인사회의 전통적 폐쇄성은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Wickberg 1992, 44; 吳文煥 1990, 101-102). '국민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화인사회의 대내적 정체성 및 대외적 자율성의 구체적 한계와 관련하여 화인사회나 토착사회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주관적 기준은 맹목이며, 제3자가 중립적으로 제시하는 객관적 기준 또한 공허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이른바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 있어서 '화인문제'를 포함한 필리핀의 국민통합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현재진행형의 과제이다. 필리핀의 국민국가와 '국민사회'는 여전히 형성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인사회와 토착사회는 이미 식민시대와 탈식민화 이후의 다양한 역사적 계기를 거치며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주체적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일정한 내재적 특수성과 역사적

계속성에도 불구하고, 대내적 및 대외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인사회의 귀속 의식과 토착사회의 수용의식의 점진적 접근에서 드러난 보편적 가변성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Tan 1988, 191-199). 그러므로 탈식민화에 따라 일찍이 '복합사회'로부터 '혼합사회'로 변화한 바 있는 필리핀사회가 앞으로 '융합사회'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myot, Jacques. 1973. *The Manila Chinese*. Quezo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 Angliongto, Jose L. 1975. *Integration of the Philippine Chinese Ethnic Elements into the National Socio-Political Community*. Rizal: National Defense College.
- Agpalo, Remigio. 1962. *The Political Process and the Nationalization of the Retail Trade in the Philippines*. Quez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Baviera, Aileen S. P. and Teresita Ang See, eds. 1992. *China Across the Seas: The Chinese as Filipinos*. Manila: Philippine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 Carino, Theresa Chong. 1990. "Leadership and Organization among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Continuity and Change." 郭梁 (1990).
- \_\_\_\_\_. 1991. "No Longer Aliens: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Perspective*, March.
- Cushman, Jennifer and Wang Gungwu, eds. 1988. *Changing Identities of the Southeast Asian Chinese since World War II*.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Golay, Frank H. et al. 1969. *Underdevelopment and Economic Nationalism in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eidhues, Mary F. Somers. 1990. "Chinese Communities in Southeast Asia: Some Parameters for Study." 郭梁 (1990).
- Liao, Shubert S. C. 1964. *Chinese Participation in Philippine Culture and Economy*. Manila: Bookman.
- McBeath, Gerald. 1970. "Chinese Integration in Contemporary Philippine Society." *The Annals of the Philippine-Chinese Historical Association*, Vol. 1, No. 1.
- \_\_\_\_\_. 1973.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Philippine-Chinese*. Berkeley: Center for South and Southeast Asia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Palanca, Ellen H. 1977. "The Economic Position of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Philippine Studies*, No. 25.
- \_\_\_\_\_. 1995. "An Analysis of the 1000 Top Corporations in the Philippines." A Paper Delivered to the Philippine Development Resource Center on June 12, 1995.
- Purcell, Victor. 1965.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vera, Temario C. 1994. *Landlords & Capitalists*. Quezon: UP-CIDS.
- \_\_\_\_\_. 1995. *The Chinese-Filipino Business Families under Ramos Government*. Tokyo: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 See, Chinben. 1981. "Chinese Clanship in the Philippine Setting."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12, No. 1.
- \_\_\_\_\_. 1985. "Chinese Education and Ethnic Identity." Theresa Carino, ed. *Chinese in the Philippines*. Manila: China Studies Program, De La Salle University.
- \_\_\_\_\_. 1988. "Chinese Organisations and Ethnic Identity in the Philippines." Cushman and Wang (1988).
- See, Teresita Ang. 1990a. "Integration and Identity: Social Changes in the Post WW II Philippine-Chinese Community." 郭梁 (1990).
- \_\_\_\_\_. 1990b.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Manila: Kaisa Para Sa Kaunlaran, Inc.
- \_\_\_\_\_. 1992. "Images of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Baviera and See (1992).

- \_\_\_\_\_. 1994. "Political Participation, Integration and Identity of the Chinese Filipinos." 洪玉華·吳文煥 (1994).
- \_\_\_\_\_. 1995.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Continuity and Change." Leo Suryadinata, ed. *Southeast Asian Chinese*.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 Steinberg, David Joel. 1982. *The Philippines: A Singular and a Plural Place*. Boulder: Westview Press.
- Suryadinata, Leo. 1993. "Patterns of Chinese Political Participation in Four ASEAN State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5, No. 3.
- Tan, Antonio S. 1988. "The Changing Identity of the Philippine Chinese, 1946-1984." Cushman and Wang (1988).
- Wang Gungwu. 1988. "The Study of Chinese Identities in Southeast Asia." Cushman and Wang (1988).
- Wickberg, Edgar. 1992. "Notes on Contemporary Organizations in Manila Chinese Society." Baviera and See (1990).
- Yoshihara Kunio. 1985. *Philippine Industrialization*. Quezo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The Rise of Ersatz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Quezo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郭 梁 編. 1990. 『戰後海外華人變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北京：中國華僑出版公司.
- 戴一峰. 1991. "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探微." 『華僑華人歷史研究』, 第2期, 總14期.
- 董孟雄·陳慶德. 1990. "戰後經濟動盪中的東南亞華人華僑社會." 郭梁 (1990).
- 李國卿. 1984. 『華僑資本的形成和發展』. 郭梁·金永勛 譯. 福州：福建人民出版社.
- 李定國. 1994. "中菲建交與菲律賓華人的整合問題." 洪玉華·吳文煥 (1994).
- 劉芝田. 1967. 『中菲關係史』. 臺北：正中書局.
- 宋 平. 1995a. "論戰後菲律賓華人社團的當地化." 『廈門大學學報(哲社版)』, 第3期.
- \_\_\_\_\_. 1995b. "菲律賓華僑善舉公所試探." 廈門大學. 『南洋問題研究』, 第4期, 84期.
- 吳文煥. 1990. "經濟利益的日趨一致." 郭梁 (1990).
- 楊 力·葉小敦. 1993. 『東南亞的福建人』. 福州：福建人民出版社.
- 周南京. 1994. "論華菲融合." 洪玉華·吳文煥 (1994).

- 賀聖達. 1990. “戰後華人華僑歷史發展分期概論.” 郭梁 (1990).
- 洪玉華·吳文煥 編. 1994. 『華人』. Manila: 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
- 黃棟星. 1992. “非國華裔參政熱潮.” 『資本家(Forbes)』, 第11期.
- 黃枝連. 1992. 『東南亞華族社會發展論』.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 黃滋生. 1990. “戰後菲律賓華僑政策演變剖析.” 郭梁 (1990).
- 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 1990. 『融合: 菲律賓華人』. Manila: 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
- 非華商聯總會. 1994. 『非華商聯總會紅寶石禧紀念特刊』. Manila: 非華商聯總會.